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대한 정서성의 영향 : 행동문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Emotionality on Their Eating Behavior Problems
: With a Focus on the Effect of Mediation of Behavior Problems

울산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 교수 권기남*

서경대학교 아동학과

부 교수 성미영**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Ulsan Science College

Assistant Professor : Gwon, Gi-Nam

Dept. of Child Studies, Seokyeong Univ.

Associate Professor : Sung, Mi-Young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ity, eating behavior problems, and behavior problems in a sample of 185 four- to five-year-old children attending kindergarten or a day care center in Seoul. The values were all measured by their teacher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im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ity each exerted negative and positive effects on their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Second, children's positive emotionality had a negative influence on their eating behavior problems. On the other hand,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eating behavior problems. Finally, effect of children's positive emotionality on their eating behavior problems was partially mediated by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on their eating behavior problems was totally mediated by their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주요어(Key Words) : 식행동 문제(eating behavior problems), 정서성(emotionality), 행동문제(behavior problems)

I. 서론

유아기는 올바른 식습관이나 식행동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식습관이나 식행동은 이후

시기에도 지속될 수 있고, 식행동에 문제가 있을 경우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연구의 경우에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식행동에 대해 살펴보았으나(Kim et al., 2005; Kim et al., 2006; Park & Ahn, 2003; Stunkard & Messick, 1985), 식행동이나 식습관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의 식행동 특성을 분석하거나 영양지식과의 관련성,

* 주저자 : 권기남 (E-mail : knkwon@uc.ac.kr)

** 교신저자 : 성미영 (E-mail : minie@skuniv.ac.kr)

그리고 어머니의 식행동 지도와의 관련성을 위주로 수행되었다(Jeong & Kim, 2009; Kim, 2010; Kim & Rha, 2005; Kim et al., 1998; Lee, Jeong, & Park, 2003). 식습관이나 식행동은 개인의 생활양식 중 한 부분으로 유아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발달이나 사회성발달 등 다른 발달영역과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부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식습관과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Park and Ahn(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식사시간이 불규칙할수록, 매일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을수록 위축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였고, 식사속도가 빠른 아동일수록 불안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영유아의 기질과 식행동의 관련성에 관심을 가진 Kim et al.(2005, 2006)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까다롭게 먹는 영아가 그렇지 않은 영아에 비해 기질의 활동성 하위영역 점수가 더 높고, 먹는 양과 횟수가 규칙적이지 않으며, 식사하는 동안 주의가 산만한 것으로 나타나서 식행동과 기질의 관련성을 확인시켜주었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 근거하여 볼 때 유아의 식행동, 특히 식행동 문제는 우울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기질의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정서성 역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아의 정서성이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유아의 기질이 식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해 볼 때, 유아의 정서성, 행동문제, 식행동 문제의 관련성에서 기질적 하위차원에 해당하는 정서성이 식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행동문제가 매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유아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문제 정도에 따라 식행동이라는 특정 영역에서의 문제도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유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행동문제의 원인을 환경적 측면보다 개인의 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개인의 긍정적 정서가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킨다(Isen, 1999)는 인식이 대두되면서 유아의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서성은 기질의 하위차원에 해당하는 유아의 정서적 반응으로 기쁨과 같은 긍정적 정서성, 슬픔, 분노,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성으로 구분된다(Rothbart et al., 1994). 여러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정서성이 행동문제를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임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긍정적 정서성과 공격적 행동의 관련성에 있어서 유아가 보이는 긍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았으며(Arsenio, Cooperman, & Lover, 2000), 긍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일수록 또래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Denham, McKinley, Couchoud, & Holt, 1990; Hubbard & Coie, 1994). 또한 다른 아동에 비해 부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충동적인 행동의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공격성이나 죄의식 등과 정적인 관련을 보였다(Rothbart, Ahadi, & Hershey, 1994). 부정적 정서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 상호작용에서 사회적으로 유능한 반응을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abes et al., 1999). 이 외에도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는 등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 경우 과잉행동이나 공격행동을 보이는 등 원만한 또래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et al., 1993; Hubbard & Coie, 1994; Kwon & Park, 2003; Lee & Moon, 2008).

유아의 정서성이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을 규명한 선행연구와 더불어, 유아 및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행동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도 실시되었다. 정서지능은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표현함으로써 사회적 교류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고(Saarni, 1999), 정서지능과 인지능력, 기질 중에서 내면화 및 외면화 행동문제에 대한 설명력은 정서지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Kim et al., 2004),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외면적 행동문제를 적게 보였다(Santesso et al., 2006).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정서표현, 정서이해, 정서조절 능력 역시 공격성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수로 확인되었다(Han, 2006). 이들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낮을수록 유아의 내면화 및 외면화 행동문제의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관련성이 규명되었으나, 이를 식행동 문제와 연결 지어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유아의 행동문제는 단지 유아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청년기 및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부적응 행동에 해당한다(Shaw et al., 2003). 행동문제는 갈등이 표출되는 방향에 따라 공격행동, 과잉행동 등과 같은 외면화 행동문제와 불안행동, 위축행동 등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로 구분되는데(Achenbach & Edelbrock, 1983),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아기의 외면화 행동문제는 청소년기 및 성인기 범죄를 가장 잘 예언하였다(Moffitt et al., 2002). 유아의 행동문제는 이후 시기에도 발달적으로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래거부, 부정적 또래관계 형성과 같이 사회적 기능이나 적응상의 어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Arsenio, Cooperman, & Lover, 2000), 유아 행동문제의 관련 요인에 대해 여러 연구자들이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면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처럼 유아기 행동문제는 이후의 발달시기에도 지속된다는 점과 더불어 다른 발달영역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이다(Arsenio et al., 2000; Shaw et al., 2003). 다양한 기초생활습관 형성의 토대가 되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임을 고려

해 볼 때 유아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행동상의 문제는 식생활 영역, 즉 식행동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식행동 관련 선행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를 토대로 할 때, 다른 유아에 비해 행동문제를 보이는 정도가 높은 유아는 식행동에서도 문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성이 식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행동문제가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관련성, 식습관과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등에 관한 선행연구에 근거해 볼 때, 유아의 일반적인 행동문제는 유아의 정서성과 식행동 문제의 관계를 매개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유아의 정서성은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우울, 위축, 공격성 등의 일반적인 행동문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변인 탐색을 위한 전략 즉, 첫째,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사라지거나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에 근거하여 먼저 만 4세 및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성이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으로 긍정적, 부정적 정서성이 식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본다. 이와 더불어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정서성이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유아의 정서성(긍정적, 부정적)은 행동문제(내면화, 외현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유아의 정서성(긍정적, 부정적)은 식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대한 정서성(긍정적, 부정적)의 영향은 행동문제(내면화, 외현화)에 의해 매개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4~5세 유아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성, 식행동 문제, 그리고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간의 관련성 및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 및 송파구 소재 3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만 4세 및 5세 유아

총 18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97명(52.4%), 여아가 88명(47.6%)이었으며, 연령은 만 4세 유아가 83명(44.9%), 만 5세 유아가 102명(55.1%)이었다. 유아의 정서성과 행동문제 관련 선행연구에서 주로 만 4~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이 시기 유아의 식행동 문제가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만 4~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가 다니는 유아교육기관은 중류층 거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료를 감면받거나 면제받는 유아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류층 가정의 자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정의 소득수준은 식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재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소득수준을 통제하고자 연구대상 유아를 중류층 가정의 자녀로 제한하였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정서성

연구대상 유아의 정서성은 Rothbart et al.(1994)이 개발한 아동행동질문지(Child Behavior Questionnaires: CBQ) 중 정서성 관련 24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하위영역은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으로 구분된다. CBQ는 선행연구들에서 한국 유아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된 대표적인 정서성 측정도구이므로 이 연구에서도 CBQ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예,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웃는다)은 기쁨의 정서 상태를 의미하고, 부정적 정서성(예, 하던 일이 안 풀리면 실망한다)은 분노/좌절, 두려움, 슬픔의 정서 상태를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기쁨(예, 재미있는 이야기나 농담을 하면 크게 웃는다)은 긍정적 정서성에 해당하고, 슬픔(예, 하던 일이 잘 안 풀리면 몹시 실망한다), 두려움(예,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 분노(예,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면 화를 낸다)는 부정적 정서성에 해당한다. 각각의 영역은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정서성 검사는 유아교육기관의 담임교사의 정서성 검사 질문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정서성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긍정적, 부정적 정서성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88, .81로 나타났다.

2) 유아의 행동문제

유아의 행동문제는 아동행동 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list: Achenbach, 1991)를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연구결과(Han & Yoo, 1995)를 토대로 하여 한국아동

에게 부적합한 문항들을 제외하고 사용하였다. 유아의 행동 문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한국유아를 대상으로 표준화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또한 대상연령이 미취학 유아라는 점과 유아교육기관의 담임교사가 질문지를 작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5개 하위영역, 각 하위영역별 6개 문항으로 구성된 총 30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행동문제 검사도구의 문항들은 크게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내면화 행동문제에는 불안(예, 걱정이 많고 무서움을 탄다), 미성숙(예, 자기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한다), 위축(예,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의 하위영역이 포함되며, 외현화 행동문제에는 과잉(예, 차분히 앉아 있지 못하고 부산하다) 및 공격행동(예, 사람들을 때리거나 친다)이 포함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써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유아의 행동문제 검사는 유아의 담임교사가 행동문제 검사 질문지를 작성함으로써 측정되었다. 행동문제 검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각각 .92, .91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식행동 문제

유아의 식행동 문제는 선행연구(Her et al., 2008; Kim, 2010)에 근거하여 식사의 규칙성, 폭식, 편식, 식사 속도 등을 중심으로 총 7문항을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한 끼번에 많이 먹는다', '좋아하는 것을 골라 먹는다', '잘 안 먹는다', '먹다가 자주 남긴다', '오래 먹는다', '아무 때나 먹는다', '먹기 싫을 때는 식사를 거를 때도 있다'와 같은 문항이 식행동 문제 문항으로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그렇다'의 경우 1점, '그렇지 않다'의 경우 0점을 부여하였고, 총점은 0점에서 7점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식행동 문제가 많음을 의미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점심식사 시간에 유아가 보이는 식행동 문제 관련 문항을 질문지에 직접 응답하도록 하여 식행동 문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식행동 문제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유아 교육기관 교사 3인과 아동학 전공자 3인에 의해 검토되었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 부정적 정서성, 식행동, 그리고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질문지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 배부를 위해 조사자가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담임교사에게 개별 유아 대상의 질문지 200부를 배부하였다. 한 학급당 유아 20명씩 담임하므로, 총 10명의 교사에게 각각 20부씩 배부하였고, 배부한 질문지는 1주일 뒤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함께 지낸 1년을 마감하는 시기인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로 교사가 담임하고 있는 유아들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총 200부의 질문지 중 185부의 질문지가 최종 회수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 기술적 통계분석을,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 분석을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내면화 ·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긍정적 ·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

유아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정서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1>에서와 같이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은 유아의 내면화 행동문제($\beta = -.182, p < .05$)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내면화 행동문제를 3.3% 설명하는 것으로

Table 1. Simple Regression : Effects of Positive/Negative Emotionality on Internalizing/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N=185

Independent variable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b(SE)	β	R ²	F	b(SE)	β	R ²	F
Constant	54.040(5.361)				22.136(4.461)			
Positive emotionality	-.578(.231)	-.182*	.033	6.278*	.120(.190)	.044	.002	.362
Constant	-2.728(4.026)				-3.904(3.668)			
Negative emotionality	.874(.079)	.633***	.400	122.045***	.575(.072)	.508***	.258	63.534***

* $p < .05$, *** $p < .001$

나타났다. 즉, 유아의 정서가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내면화 행동문제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유아의 내면화 행동문제($\beta=.633, p<.001$)와 외현화 행동문제($\beta=.508, p<.001$)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를 각각 40%, 25.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정서가 부정적일수록 유아의 내면화 행동문제와 외현화 행동문제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조건 즉,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은 외현화 행동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정서성의 영향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대한 정서성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을 각각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식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은 유아의 식행동 문제($\beta=-.248, p<.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며, 식행동 문제에 대한 설명력은 6.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유아의 식행동 문제($\beta=.269, p<.001$)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식행동 문제를 7.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정서가 긍정적일수록 유아의 식행동 문제 수준이 낮으며, 유아의 정서가 부정적일수록 유아의 식행동 문제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실은 Baron and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두 번째 조건 즉,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대한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영향

유아의 부정적·긍정적 정서성과 내면화·외현화 행동문제가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긍정적·부정적 정서성과 내면화·외현화 행동문제를 독립변인으로, 유아의 식행동 문제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를 살펴본 결과, 식행동 문제에 대해 긍정적 정서성과 내면화 행동문제의 공차한계는 0.97, VIF 지수는 1.03, 부정적 정서성과 내면화 행동문제의 공차한계는 0.60, VIF 지수는 1.67, 부정적 정서성과 외현화 행동문제의 공차한계는 0.74, VIF 지수는 1.35의 분포를 보여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에서 보듯이,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대한 긍정적 정서성과 내면화 행동문제의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 분석에서 식행동 문제에 대한 긍정적 정서의 영향은 내면화 행동문제의 영향력을 통제한 2단계 분석에서 감소($\beta=-.248 \rightarrow \beta=-.201$)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정서성을 통제했을 때 내면화 행동문제의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beta=.262, p<.001$). 식행동 문제에 대한 설명력은 긍정적 정서성만이 투입된 경우 6.2%에서 내면화 행동문제 변인이 추가 투입된 경우 12.8%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부분매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번째 조건 즉,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로써, 유아의 내면화 행동문제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식행동 문제의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Table 4>의 결과에 따라 먼저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과 내면화 행동문제의 영향을 살펴보면, 1단계 분석에서 식행동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정적 정서성이 2단계 분석에서는 더 이상 유의하지 않은 것

Table 2. Simple Regression : Effects of Positive/Negative Emotionality on Eating Behavior Problems N=185

Independent variable	Eating behavior problems			
	b(SE)	β	R ²	F
Constant	2.553(.429)			
Positive emotionality	.0640(.018)	-.248**	.062	12.036**
Constant	-.417(.406)			
Negative emotionality	.030(.008)	.269***	.073	14.320***

p < .01, *p < .001

Table 3.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 Effects of Positive Emotionality, Internalizing/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on Eating Behavior Problems N=185

Independent variable	Eating behavior problems			
	Step 1		Step 2	
	<i>b</i> (<i>SE</i>)	β	<i>b</i> (<i>SE</i>)	β
Positive emotionality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064(.018)	-.248**	.052(.021) .018(.006)	-.201** .262***
R ²	.062		.128	
Adj-R ²			.119	
F	12.036**		13.389***	
Positive emotionalit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115(.192)	.044	-.067(.018) .024(.007)	-.259*** .240**
R ²	.002		.119	
Adj-R ²			.110	
F	.362		12.315***	

p* < .01, *p* < .001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 Effects of Negative Emotionality, Internalizing/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on Eating Behavior Problems N=185

Independent variable	Eating behavior problems					
	Step 1			Step 2		
	<i>b</i>	<i>SE</i>	β	<i>b</i>	<i>SE</i>	β
Negative emotionality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030	.008	.269***	.015 .017	.010 .007	.134 .214*
R ²	.073			.100		
Adj-R ²				.090		
F	14.320***			10.122***		
Negative emotionality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030	.008	.269***	.023 .012	.009 .008	.207* .124
R ²	.073			.084		
Adj-R ²				.074		
F	14.320***			8.335***		

p* < .05, **p* < .001

으로 나타났고, 내면화 행동문제만이 식행동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214, p<.05$). 내면화 행동문제에 대한 설명력은 부정적 정서성만이 투입된 경우 7.3%에서 내면화 행동문제 변인이 추가 투입된 경우 10.0%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면화 행동문제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이전에 존재하던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이 사라진 것이다.

이는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완전매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번째 조건 즉,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효과가 매개변인 통제 시 무의미해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는 결과로써, 유아의 내면화 행동문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식행동 문제의 관계를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적으로 탐색하고자 한 유아의 식행동 문

제에 대한 설명력이 10% 내외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과 외현화 행동문제의 영향을 살펴보면, <Table 4>에서 보듯이 1단계 분석($\beta=.269, p<.001$)에서 식행동 문제에 대한 정서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정적 정서성이 2단계 분석($\beta=.207, p<.05$)에서도 여전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 정서성을 통제했을 때 식행동 문제에 대한 외현화 행동문제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매개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번째 조건 중 독립변인 통제 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로써,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식행동 문제의 관계를 매개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긍정적, 부정적 정서성과 식행동, 그리고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만 4세 및 5세 유아 18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유아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대한 정서성의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면화 행동문제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은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쁨과 같은 긍정적 정서성 수준이 유아의 불안이나 위축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만, 기쁨과 같은 정서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이나 위축 수준은 더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유아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수준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슬픔,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불안이나 위축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 그리고 과잉 및 공격 행동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 수준도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아동의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성 수준은 낮고, 부정적 정서성은 높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Arsenio et al., 2000)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더불어 시설보호 유아의 경우에도 긍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내면화 행동문제 수준은 낮으며,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Sung, 2006)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외현화 행동문제 간에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은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은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ung, 2006). 이처럼 부정적 정서성은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긍정적 정서성은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긍정적인 정서성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문제를 완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즉, 위축이나 불안 등의 내면적 문제는 긍정적 정서의 힘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공격행동이나 과잉행동 등 외현적으로 표출되는 문제는 정서의 긍정적인 측면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감소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친사회적 행동의 경우에는 개인의 긍정적 정서에 의해 증진되나(Isen, 1999), 이에 상반되는 공격 행동의 경우에는 긍정적 정서에 의해 감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달의 누적적 측면에서 부정적 정서성이 생의 초기부터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때, 부정적 정서성을 완화시키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부정적 정서성의 하위영역을 세분화하여 살펴본 일부 연구결과(Rothbart & Posner, 2006)에 따르면, 부정적 정서 중에서도 슬픔이나 두려움은 내면화 행동문제와 관련되고, 분노나 과민함은 외현화 행동문제와 관련되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적 정서 완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를 세분화하여 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을 추적하여 부정적 정서성과 행동문제의 관련성이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은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부적 영향을 미쳐서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식행동 문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식행동 문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립적 정서보다 부정적 정서를 유도할 때 칼로리 섭취가 더 증가하며(Cools, Schotte, & McNally, 1992), 폭식증, 거식증, 다식거부증 등과 같은 식이장애 관련 선행연구들을 상위분석하여 부정적 정서를 식이장애의 위험요인으로 보고한 연구(Stice, 2002)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완화시키는 한편, 긍정적 정서성의 발달을 도모하는 노력이 유아의 식행동 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먹는 행동을 통해 위안을 얻어 부정적 정서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폭식을 하게 되며, 먹은

것을 토해내는 것으로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먹은 음식을 토해내는 것과 같은 급진적 행동을 하게 된다는 정서조절모델 이론가들(Hawkins & Clement, 1984; McCarthy, 1990)의 견해를 고려할 때, 자신의 정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대처가 유아의 식행동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서적 문제에 음식 섭취로 대처하는 것은 단순히 식행동 문제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 학습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Brown, Schiraldi, & Wroblecki, 2009). 따라서 유아에게 부정적 정서가 발현되었을 때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게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유아의 내면화 행동문제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 및 부정적 정서성과 식행동 문제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이 내면화 행동문제와 관련이 있으며(Rothbart & Posner, 2006; Sung, 2006), 내면화 행동문제의 하위 영역에 속하는 불안이나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식행동 문제 수준이 높다(Brown et al., 2009; Mayer et al., 2009)는 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대한 긍정적 정서성의 영향은 유아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며,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은 유아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내면화 행동문제를 통한 유아의 식행동 문제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긍정적 정서성과 부정적 정서성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먼저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과 식행동 문제 변인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 행동문제 변인의 부분매개 역할은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은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내면화 행동문제를 통해 식행동 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아 식행동 문제의 예방 및 개선에 있어서 긍정적 정서 발달 프로그램의 제공 등과 같이 유아의 긍정적 정서성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과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지지 제공 등의 중재프로그램과 같이 유아의 내면화 행동문제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함께 제공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식행동 문제 변인 간의 관계에서 내면화 행동문제 변인의 완전매개 역할은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대한 부정적 정서성의 영향은 모두 유아의 내면화 행동문제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직접적으로 유아의 식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정적 정서성이 내면화 행동문제

로 연결되어 식행동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유아의 슬픔이나 두려움 등의 부정적 정서 수준이 높더라도 불안이나 우울, 위축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의 수준이 낮다면 유아의 식행동 문제의 수준은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의 식행동 문제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중재적 노력이 부정적 정서성에만 초점을 맞출 때, 한계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부정적 정서성의 조절 노력이 유아의 내면화 행동문제의 수준을 낮추는데도 함께 기여할 수 있을 때만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식행동을 편식이나 폭식 등과 같은 문제의 발생 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측정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식사시간에 식행동 문제를 보이는지 아닌지만 측정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편식이나 불규칙한 식사시간 등의 정도와 횟수를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리커트형 문항으로 구성하여 식행동 수준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식행동 문제뿐만 아니라 식습관이나 전반적인 식행동 문항을 포함시켜 유아의 정서성이나 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식행동 문제를 담임교사가 응답한 질문지에 근거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부모도 자녀의 식행동 문제를 함께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 유아가 보이는 식행동 문제의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중류층 가정의 유아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의 표집을 더욱 광범위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동안의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유아의 정서성과 행동문제 변인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유아의 정서성과 행동문제, 식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유아의 식행동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부모 및 교사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의 결과는 식행동이라는 세부 발달 측면에 유아의 전반적인 행동문제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었고, 식행동 문제를 단순히 식습관의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유아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문제와 연결 지어 식행동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가진다.

REFERENCE

- Han, E. G.(2006). Affective predictors of school-age children's aggression and peer relationship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4(5), 1-15.
- Han, M. H., & Yoo, A. J.(1995). The validation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6(2), 5-21.
- Her, E. S., Lee, K. H., Bae, E. Y., & Lyu, E. S.(2008). Interrelations among beverage intake, food behavior and personality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Nutrition*, 13(2), 189-198.
- Jeong, N. Y., & Kim, K. W.(2009). Nutrition knowledge and eating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eoul. *Korean Journal of Nutrition*, 14(1), 55-66.
- Kim, J. H., Choi, J. H., & Moon, S. J.(1998). An ecological study on eating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3(2), 292-307.
- Kim, J. H., Lee, M. J., Moon, S. J., Shin, S. C., & Kim, M. K.(1993). Ecological analysis of food behavior and life-styles affecting the prevalence of depress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Nutrition*, 26(9), 1129-1137.
- Kim, K. H.(2010). Food habits, eating behaviors and food frequency by gender and among Seoul and other regions in upper-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5(2), 180-190.
- Kim, Y. J., Chung, S. J., Han, Y. S., Lee, Y. N., Lee, S. I., Byun, K. W., & Choi, H. M.(2005). The characteristics of infants' temperament, maternal feeding behavior and feeding practices in picky eater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0(4), 462-270.
- Kim, Y. J., Han, Y. S., Chung, S. J., Lee, Y. N., Lee, S. I., & Choi, H. M.(2006). Characteristics of infants' temperaments and eating behaviors, mothers' eating behaviors and feeding practices in poor eating infants.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11(4), 449-458.
- Kim, Y. S., & Rha, Y. A.(2005). A study for dietary behavior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by gender. *The Korean Journal of Culinary Research*, 11(4), 77-91.
- Kim, Y., Han, T., S., & Hwang H. J.(2004). A study on the relativ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cognitive ability and temperament on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of pre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6), 277-298.
- Kwon, Y. H., & Park, K. J.(2003). Effects of emotionality,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strategies, and maternal behaviors o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4(3), 27-44.
- Lee, H. S., Jeong, W. S., & Park, U. I.(2003). The dietary behavior of obese and normal weight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Nutrition*, 8(6), 831-839.
- Lee, J. H., & Moon, H. J.(2008).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ity, emotion regulation,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on children's peer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4), 1-14.
- Park, H. S., & Ahn, S. H.(2003). Eating habits and social behavior in Korean pre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Nutrition*, 36(3), 298-305.
- Sung, M. Y.(2006). Children's emotionality and behavior problems depending on their institutionalization.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5(1), 17-29.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 of Vermont.
- Arsenio, W. F., Cooperman, S., & Lover, A.(2000). Affective predictors of preschoolers' aggression and peer acceptanc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Developmental Psychology*, 36(4), 438-448.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rown, S. L., Schiraldi, G. R., & Wroblewski, P. P.(2009). Association of eating behaviors and obesity with psychosocial and familial influences. *Americ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40(2), 80-89.
- Cools, J., Schotte, D. E., & McNally, R. J.(1992). Emotional arousal and overeating in restrained eat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348-351.
- Denham, S. A., McKinley, M., Couchoud, E. A., & Holt, R. (1990). Emotional and behavioral predictors of

- preschool peer ratings. *Child Development*, 61, 1045-1152.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Fabes, R. A., Eisenberg, N., Jones, S., Smith, M., Guthrie, I., Poulin, R., Shepard, S., & Friedman, J. (1999). Regulation, emotionality, and preschoolers' socially competent peer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70(2), 432-442.
- Hawkins, R. C., & Clement, P. F.(1984). Binge eating: Measurement problems and a conceptual model. In R. C. Hawkins, W. J. Fremouw, & P. E. Clement (Eds.), *The binge-pure syndrome: Diagnosis, treatment, and research*. N.Y.: Springer Pub. Co.
- Hubbard, J. A., & Coie, J. D.(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
- Isen, A. M.(1999). Positive affect. In T. Dalgleish & M. J. Power (Eds.), *Handbook of cognition and emotion* (521-539). N.Y.: John Wiley & Sons.
- Mayer, B., Muris, P., Meesters, C., & Zimmermann-van Beuningen, R.(2009). Brief report: Direct and indirect relations of risk factors with eating behavior problems in late adolescent females. *Journal of Adolescence*, 32(3), 741-745.
- McCarthy, M.(1990). The thin ideal, depression, and eating disorders in women.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28, 205-218.
- Moffitt, T. E., Caspi, A., Harrington, H., & Milne, B. J.(2002). Males on the life-course-persistent and adolescent-limited antisocial pathways: Follow-up at age 26 years.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14, 179-207.
- Rothbart, M. K., & Posner, M. I.(2006). Temperament, attention,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 & D. J. Cohen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2. Developmental Neuroscience* (465-501). N.Y.: Wiley.
- Rot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ar Quarterly*, 40, 21-39.
- Saarni, C.(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Y.: Guilford Press.
- Santesso, L. D., Dana, L. R., Schmidt, L. A., & Segalowitz, S. J.(2006). Frontal electroencephalogram activation asymmetry, emotional intelligence, and externalizing behaviors in 10-year-old childre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6(3), 311-328.
- Shaw, D. S., Gilliom, M., Ingoldsby, E. M., & Nagin, D. S.(2003). Trajectories leading to school-age conduct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9, 189-200.
- Stice, E.(2002). Risk and maintenance factors for eating pathology: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8(5), 825-848.
- Stunkard, A. J., & Messick, S.(1985). The three factor eating questionnaire to measure dietary restraint, disinhibition, and hunger.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29, 71-83.

접수일 : 2011년 11월 15일

심사일 : 2011년 12월 09일

게재확정일 : 2012년 01월 19일